

제3회 밤길되찾기시위 전국 행사 지역 및 장소

〈강원〉 춘천 : 춘천시청 앞 / 강릉 : 대학로 / 속초 : 엑스포광장 〈경기〉 평택 : 케익타운 / 하남 : / 군포 : 범계역 / 부천 : 송내역 투나 앞 / 인천 : 인천예술문화회관 / 동두천 : 송내 신시가지 우리은행 사거리공원 〈광주, 전라〉 목포 : 하남 평화광장 / 김제 : 김제CNA / 전주 : 전북대 구정문앞 / 광주 : 충장로1가 광주우체국 〈경북〉 포항 : 한호 해맞이공원 / 구미 : 구미역앞 / 로타리 / 문경 : 국민은행 사거리 / 칠곡 : 왜관역 광장 〈부산, 울산, 경남〉 진주 : 차없는 거리 / 거제 : 종곡동광장 / 창원 : 경남대 해운프라자 / 사천 : 삼천포 실내체육관 〈서울〉 남인사마당 〈제주〉 시청어울림마당

제3회 밤길되찾기시위 공동준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관악여성주의자모임, 서울여성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언니네트워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제3회 밤길되찾기시위 참여단체

〈강원〉 춘천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강원여성긴급전화1366, 강원노인학대예방센터, 강원아동학대예방센터, 강원여성센터, 강릉가정폭력상담소부설 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두두리 쫓돌때 〈경기, 인천〉 평택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폭력상담소평택안성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홍사단, 아람당고푸른평택21 여성청소년분과, 평택청소년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기여성긴급전화1366, 안양여성전화성폭력상담소, 의왕가정 상담소, 마라의 셀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가정 성폭력상담소, 은누리성가정폭력상담소, 동두천여성상담센터, 양주경찰서민간지킴이, 동두천여성단체협의회, 부천여성전화 성폭력상담소, 부천시민연합여성회, 부천여자단체 〈광주, 전라〉 군산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상담센터, 무안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해남산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 경북〉 대구여성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구미여성통합상담소, 밀그림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문경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칠곡여성폭력통합상담센터 〈대전, 충청〉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조치원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홍성 성폭력피해상담소, 아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부설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YWCA부설성폭력상담소,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부산, 울산, 경남〉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회, 진주반미여성회, 진주여성농민회, 거제성폭력상담소, 거제가정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천성폭력상담소 〈서울〉 관악여성주의자연대, 서울여성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언니네트워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제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도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3회 밤길되찾기시위 들여다보기 · 나누기

달빛아래 여성들, 몸의 권리와 힘, 기쁨을 되찾다!

2006년 7월 7일(금) 밤7시-10시

달빛시위공동준비위원회
www.dalbeat.net

달빛시위공동준비위원회

www.dalbeat.net 02-338-2890 krisv@paran.com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후원

발행일 2006년 7월 7일



1회 밤길 되찾기 들여다보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고, 이에 많은 여성들이 더욱 더 밤길을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했다. 여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의 일상적인 폭력 속에서 위협받아왔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이 알아서 조심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의 부주의와 품행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밤길을 배회하는, 행실에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성폭력가해자의 범죄,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다. 이 같은 편견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3차 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밤길을 다닐 때 공포와 위협을 느끼며 스스로 조심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왜곡된 밤길의 이미지를 부수고 새롭게 여성의 안전한 밤길을 찾고자 거리에 나왔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여성들만 조심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2004년 8월 13일 성명서 중 일부

때 2004년 8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 10시

곳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서울 시내 곳곳

행사내용 밤 8시 여성들, 밤길에 모이다! 성명서 낭독 및 분장

밤 8시 ~ 9시 여성들, 밤길을 건다! 서울 시내 곳곳 게릴라 달빛 시위

밤 9시 여성들, 밤길을 열다! 국제청 앞 후레쉬춤 시위

밤 10시 밤길을 되찾자! 공포를 벗자! 분노를 터트리자, 정리집회

참가자 준비물 후레쉬, 귀신분장, 흰 옷



- 1 밤길에서 여성이 혼자 앞에 가고 있을 때, 여성이 위협을 느끼고 걸음을 빨리 하면 걸음을 늦추고, 여성이 걸음을 늦추면 앞질러 가는 등의 센스를 발휘한다.
- 2 밤길에,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마주치는 여성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는다.
- 3 시도 때도 없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시선으로 여성의 몸을 훑어보거나 응시하지 않는다.
- 4 자기 몸이 남에게 함부로 닿지 않도록 각별히 간수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손간수를 잘 하고, 다리를 꼭 벌리고 앉아 남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노상방뇨가 수치스러운 일임을 자각한다.
- 6 남녀공용화장실에서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문을 닫고 용변을 본다.
- 7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과 단 둘이 기다리게 될 경우 여성에게 혼자 탈 의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8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밤길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이 매우 폭력적인 일임을 자각한다.

- 2005년 7월 29일 남성들의 몸가짐 지침 중 일부

2회 밤길 되찾기 들여다보기

때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곳 서울 신촌 창천공원 (전국 19개 지역 80여개 단체 동시개최)

행사 내용 7시 무용담(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찾아라!)

적극적 방어술 익히기(우리 몸의 힘을 키우자!)

달빛시위 행진 선언, 성명서 낭독

8시 행진, 구호외치기 (달빛 아래 여성들, 분노를 터뜨리다!)

9시 공동퍼포먼스, 권리헌장 낭독(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

참가자 준비물 억압과 공포를 깨우는 크고 작은 "종" 그리고 불량소녀 복장